



2017시즌 유니폼을 입은 광주 FC 선수들과 남기일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가 올 시즌 선전을 다짐하며 단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유럽 전훈 땀방울, 6강으로 열매 맺자

남기일 감독 “선수들 발전... 원하는 것을 얻은 시간”
선수들 “수준 높은 팀과 연습경기로 많은 것 배워”
24일까지 나주서 동계훈련...내달 4일 개막전 대비



GWANGJU FOOTBALL CLUB

포르투갈 전지 훈련을 끝낸 광주 FC 선수들이 새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지난달 16일 포르투갈행 비행기에 올랐던 광주 FC 선수들은 지난 10일 장단 첫 유럽 전지훈련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잠시 휴식을 취했던 선수들이 14일 안방인 광주월드컵경기장에 다시 소집됐다. 선수단의 귀국 후 첫 일정은 카메라 앞에서 새 유니폼을 입고 프로필 사진 촬영

에 나섰다. 프로에서의 첫 유니폼을 입게 된 급하고 출신의 공격수 나상호부터 광주 선수로 네 번째 시즌을 보내게 되는 최고참 이종민까지 선수들은 밝은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선수들은 “아직 시차 적응이 덜 됐다”며 피곤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지만 포르투갈에 많은 것을 얻어왔으며 지난 전지훈련에 대해 돌아왔다. 특히 수준 높은 유럽팀들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입을 모았다. 올림픽 대표팀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박동진에게도 포르투갈에서의 연습 경기는 특별했다. 박동진은 “상대들의 피지컬이 상당히

좋았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했다. 나이, 선 후배 따질 필요가 없어서 공격적으로 기싸움을 하기도 했다(웃음)”며 “연습경기를 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팀의 최고참 이종민에게도 후배들의 성장세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종민은 “날씨도 좋았고 훈련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었다. 연습경기를 하면서 나도 그렇고 후배들도 많이 느끼고 배운 것 같다”며 “처음에는 상대의 뛰어난 피지컬에 후배들이 주눅 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빠른 스피드 때문에 고전을 하기도 했지만 이내 적응을 하는 모습이었다. 나중에는 해보려고 하고 상대와 공격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후배들의 간절함도 볼 수 있었고 많이 성장한 것 같다”고 미소를 지었다. 사령탑 남기일 감독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포르투갈 전훈을 평가했다. 남 감독은 “축구하기에 좋은 환경과 날

씨였다. 조직력에 중점을 뒀다. 어린 선수들이 대부분이라서 유럽 자체가 처음인 선수들도 많았다. 여기에 상대가 피지컬이 강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개개인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 전지훈련이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새 유니폼을 입고 힘찬 출발을 다짐한 이들은 15일 다시 스파이크 끈을 조여매게 된다. 3월4일, 2017시즌 개막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17일. 광주 선수단은 24일까지 나주 공설운동장 일대에서 3차 동계훈련을 갖고 시즌을 대비한다. 한편 지난해 10월 구단주 윤장현 광주 시장과 광주시의 소극적인 태도에 사퇴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정원주 광주 FC 대표이사(중흥건설 사장)도 이날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과 단체 사진을 찍으며 눈길을 끌었다. 정 대표는 선수들과의 미팅 자리에서 광주 FC의 정상화와 안정적인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4일 오전 오키나와현 우루마시 구시기와 구장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야구 대표팀 훈련에서 김인식 감독이 훈련장을 찾은 김기태 KIA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태 감독, 대타로 써볼까 제자 방문 받은 WBC 김인식 감독

“지금 대표팀에 김기태 감독이 선수로 있으면, 중요한 때 대타로 써야지.”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야구대표팀 사령탑 김인식(70) 감독이 유쾌하게 웃었다. 김기태 KIA 감독은 WBC 대표팀 훈련이 열린 14일 일본 오키나와 우루마 구시기와 구장을 찾았다. 조계현 KIA 수석코치도 함께였다. KIA는 오키나와 칸 구장에 스프링캠프를 차렸다. 훈련 시작 전 구시기와 구장에 도착한 김기태 감독은 감독실을 찾아 김인식 감독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김인식 감독은 환하게 웃으며 프로 야구 사령탑이 된 김기태 감독을 맞이했다. 김인식 감독은 “KIA 선수들도, 김기태 감독도 훈련 열심히 하는 것 같다”며 김기태 감독의 손을 잡았다. 김기태 감독은 “감독님, 응원하겠습니다”라고 외쳤다. 김인식 감독과 김기태 감독은 쌍방울 시절 사령탑과 선수로 제자의 연을 맺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수석코치와 주장으로 동메달을 따내기도 했다. 김기태 감독이 떠난 뒤, 김인식 감독은 “지금 김기태 감독 같은 좌타자가 대표팀에 있으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김기태 감독은 정말 좋은 좌타자였다. 당연히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자를 칭찬한 김인식 감독은 “지금 대표팀에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김태균(한화 이글스), 최형우(KIA) 등이 있으니, 타자 김기태는 중요할 때 대타로 쓰겠지”라고 특유의 유풀을 담아 말했다. 제자의 방문에 김인식 감독은 잠시나마 대표팀에 대한 고민을 잊고 크게 웃었다. /연합뉴스

새 봄, 새 옷, 새 각오



광주 FC 선수들이 2017시즌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분홍색의 원정 골키퍼 유니폼을 입은 최봉진, 홈 유니폼 차림의 ‘캡틴’ 이종민, 파랑 홈 유니폼을 착용한 골키퍼 윤보상, 하얀 원정 유니폼의 미드필더 김민혁. <광주 FC 제공>

광주 FC “시민과 함께하는 명문구단 도약” 유니폼 제작

프로축구 광주 FC의 2017시즌 유니폼이 공개됐다. 광주는 14일 “2017시즌 슬로건을 ‘축구 이상의 가치와 감동, All In 광주FC’로 정하고, 시민과 하나 되는 명문구단 도약을 위해 새로운 유니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새 유니폼은 착용이 편한 V넥 형태로 디자인되었으며, 전체적인 톤을 밝게 하는 대신 무채색 계열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줘 안정감과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피 부분에는 광주의 전통 색상을 넣어 라인을

부각시켰다. 또 하단에 광주의 이니셜인 GFC자를 형상화한 엠블럼(주작:남방의 평화를 지키는 상징) 문양을 새겨 넣어 포인트를 주었다. 뒷면에는 ‘OUR PRIDE’를 실사로 표시해 팬들과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의 자부심을 표현했다. 홈 유니폼은 광주의 주색이자 영광과 빛을 상징하는 노란색을, 세컨드 유니폼은 평화를 상징하는 흰색을 주색으로 해 구단의 전통성을 유지했다. 골키퍼 홈 유

니폼은 파랑, 세컨드 유니폼은 분홍색을 사용했다. 상의는 땀 배출과 신축성이 뛰어난 트라이 스판 소재를 사용했으며, 하의에는 가볍고 신축성이 좋은 싱글 스판 소재를 적용했다. 유니폼을 공개한 광주는 16일부터 어센틱 유니폼 판매에 들어간다. 유니폼은 구단 홈페이지 쇼핑몰(www.gwangjufc.com)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이달 28일까지만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시즌 새 점퍼 공개

KIA 타이거즈가 2017 시즌 새 점퍼를 선보였다. 올 시즌부터 선수단이 착용하게 될 점퍼는 클래식한 베이스볼 점퍼 디자인으로 새 유니폼과 같은 ‘뉴기아 레드(New KIA Red)’ 컬러를 적용해 세련미와 생동감을 더했다. 점퍼는 동계용과 춘추용 2종류로 제작된다. 특히 어깨에서 소매까지 3M의 리플렉트(재귀반사) 소재를 적용, 선수들을 돋보이게 했다. 리플렉트 소재는 빛이 닿으면 반사되는 소재로 최근에는 야간 운동족을 겨냥한 아웃도어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이번엔 새로 선보인 점퍼는 마제스틱 코리아(http://tigers.lockerdium.com)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춘추용은 14만9000원이며 동계용은 16만9000원이다. (문의 : 마제스틱 코리아·070-4496-0127)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조심 또 조심... 다치지 마라

훈련장, 부상 경계령

훈련이 끝나면 트레이닝 코치는 더 분주해진다.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은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에 트레이닝 코치 5명을 불렀다. 조대현(NC 다이노스), 김병곤(전 LG 트윈스), 김지훈(KT 위즈), 김부원, 유태현(두산 베어스) 코치가 훈련 전후로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선수들의 몸 상태를 점검한다. WBC 대표팀에 향한 선수는 각 구단의 재산이다. 김인식 WBC 대표팀 감독이 “일단 부상 없이 훈련과 대회를 치르자”라는 말을 자주하는 이유다. 김 감독은 13일 WBC 대표팀 훈련 첫날에도 ‘부상 방지’를 화두로 삼았다. 특히 ‘투수 몸 상태’에 대한 걱정이 크다. 김 감독은 “훈련이나 대회 기간에

몸이 불편한 선수가 생길까 걱정이이다. 특히 투수들은 2월이 가장 민감한 시기”라며 “훈련을 잘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진우 투수 코치는 투수들과 미팅에서 “너무 서두르다 탈이 날 수 있다”며 “캐치볼, 불펜피칭 일정 등을 상의하자”고 ‘건강’을 강조했다. 2월 말 한국에서 합류하는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을 뺀 대표팀 투수 12명이 오키나와에서 훈련한다. 이 중 2명은 아직 불펜피칭을 시작할 단계가 아니다. 김 감독과 코치들은 이들에게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WBC는 국가의 명예를 걸고 나서는 대회다. 하지만 선수들은 소속팀을 위해 뛰어야 하는 정규시즌도 신경 써야 한다. 대회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대표팀이지만, 훈련장에서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 /연합뉴스

WBC 서울라운드 입장권 예매 시작

KBO는 다음 달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최되는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서울라운드 경기 입장권을 예약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예매는 인터파크의 홈페이지(http://ticket.interpark.com)와 ARS(1544-1555),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인당 최대 4매까지 할 수 있다. 외국인 야구팬을 위한 영문 홈페이지(http://goo.gl/bJbVg3)도 운영한다. 현장판매는 예매 취소분에 한해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오후 6시 30분 네덜란드-대만, 9일 정오 이스라엘-네덜란드 경기 입장권도 예매할 수 있다. /연합뉴스